

## 풍자적 기법으로 그린 자아상실의 시대

앤서니 버제의스 《클락워크 오렌지》와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김연수 | 소설가

소년원에서 교정을 받고 나온 불량소년 알렉스는 어느날 자신이 자기 패거리의 우두머리임을 보여주기 위해 한 노파집을 털러 갔다가 친구의 배신으로 경찰에 체포된다. 그가 구타했던 노파가 죽었기 때문에 알렉스는 14년형을 언도받는다. 이제 알렉스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죄수번호 6655321만이 남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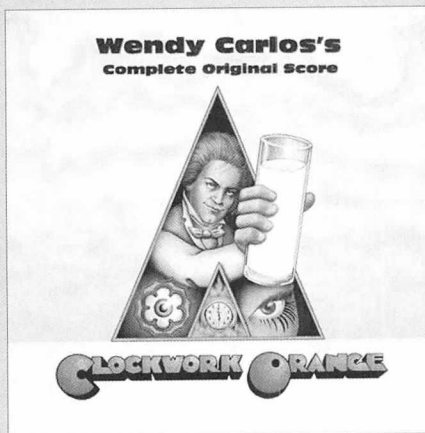
### ‘교화치료법’의 희생양이 된 알렉스

하지만 야생마 같은 알렉스, 아니 6655321은 감옥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새로 들어온 신참을 손보다가 그를 죽여버린 것이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 국가는 과학적으로 죄악을 퇴치하는 ‘교화치료법’을 마련하게 된다. 이 교화치료법을 받으면 보름 후에 다시 풀려날 수 있다고 교도소장은 말한다.

알렉스는 정말 보름 뒤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 알렉스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어다가 예전에 즐겨 다니던 음반가게 멜로디아에 들어가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을 틀어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흘러나온 것은 모차르트의 〈프라하〉란 곡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음악을 들은 알렉스가 통증과 구토에 사로잡혀 미친 사람처럼 음악 듣는 박스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깡패질을 하면서도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즐겨 들던 알렉스였는데, 이제 음악만 들으면 통증과 구토에 시달리는 사람이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로운 내무장관이 주창한 ‘교화치료법’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전후 영국 문단을 이끈 앤서니 버제의스의 1962년 소설 《클락워크 오렌지》는 사실 1971년 상영



소설 《클락워크 오렌지》에서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은 더없이 인간적인 취미에서 사람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정교한 장치로 바뀐다. 이 섬뜩한 비전이 버제의스의 독특한 언어와 만나 디스토피아의 암울함을 그린다. 사진은 영화 《클락워크 오렌지》의 사운드트랙.

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로 더 많이 알려졌다. 이 영화는 여러모로 충격적인데, 그 중에서도 달콤한 노래 〈Singing in the Rain〉에 맞춰 알렉스 일당이 작가 부부를 폭행하는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다. 어떤 비평가는 큐브릭이 아버지 세대를 비웃기 위해 원작에 없는 이 노래를 삽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원작을 잘 살펴보면 그 의도가 분명해진다.

### 취향까지 조절하는 조직의 폭력

그렇다면 알렉스가 받은 ‘교화치료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소설에 따르면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온갖 폭행·강간·살인·학살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화면을 보는 일이다. 약물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이 치료법 때문에 이제 알렉스는 폭행·강간 등의 행위를 볼 때마다 조건반사적으로 고통과 구토를 느끼게 된다. 이른바 새로운 개혁자인 신임 내무장관의 새로운 구상이

바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인간을 통제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화면에 맞춰 틀어준 음악이 바로 베토벤이나 헨델의 음악이었던 것이다. 알렉스가 더 이상 그토록 좋아하던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이제 알렉스가 완전히 조직에 순종하는 기계적인 인간이 됐다는 사실을,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결국 알렉스는 자신이 그의 아내를 윤간한 바 있는 작가의 집에 머물다가 옆방에서 들려오는 오토 스카텔리그의 〈교향곡 제3번〉을 견디지 못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 자살시도는 알렉스를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려놓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알렉스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을 환희에 차서 듣게 된다.

이 소설은 버제의스 특유의 풍자가 독창적인 언어기법과 피카레스크적 서술 위에 펼쳐진 작품으로, 불량소년 알렉스를 통해 흔들리고 있는 개인의 정체성을 다뤘다. 음악적으로만 보자면, 알렉스를 세뇌시킬 때 클래식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예술 작품의 아우라가 상실된 시대, 곧 자아가 상실된 시대를 풍자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시 큐브릭의 작품으로 돌아가자. 그 영화를 본 사람은 이제 예전처럼 〈Singing in the Rain〉을 들을 수 없다. 빗줄기를 맞으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 음률이 이제는 작가의 아내를 윤간하는 장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알렉스를 세뇌시키는 임무를 띤 브로드스키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연상법이라는 거다. 가장 오래 사용돼온 교육 방법이지.” 이쯤이면 큐브릭이 문제의 윤간 장면에서 그 노래를 사용한 의도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윤간 장면을 떠올리는 우리 역시 알렉스, 시계태엽장치에 끼인 이상한 오렌지가 됐으니.●